

#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놓고 ‘난상토론’

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토론회

찬반 팽팽...수개월째 ‘제자리 걸음’

30일 임시회 본회의서 재표결 예정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상향 문제를 놓고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난상토론만 벌인 채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광주시의회는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 조례 재의요구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광주시의 재의 요구로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

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 재표결에 앞서 마련됐다.

하지혜 광주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광주시 용적률 관리 방향 연구’ 과제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혜 박사는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을 두고 찬반이 첨예한 상황에서 타 도시 사례를 살펴 보면 단순히 용적률 상향보다는 공공기여 등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 유도과 관리가 바람직하다”며 “용적률 조정이 필요하다면 현행 인센티브 제도를 재검토해 보다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서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용적률 상향시 고층 아파트 주상복합건물이 난립하게 돼 스카이라인을 해치

고 난개발이 볼 보듯 뻔하다”며 “이는 곧 공급시설 불균형을 초래하고 교통 혼잡, 주차장 부족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중심상업지역만 특정해 용적률을 조정하려는 것은 민원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비칠 수 있다”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용적률 조정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찬성 측이 명분으로 삼는 것 중 하나가 도심 쇠퇴, 인구 감소, 건설 경기 활성화인데 최근 5년 간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중심상업지역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권 침체 문제 역시 인구 감소나 도심 쇠퇴보다는 온라인 소비 증가, 도심 이동 등 다양한 원

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도 “용적률을 상향하면 주거환경과 도시 기반 시설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해 시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는 용적률 부족 때문이 아니라 건설원가 상승과 수요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주승일 총장상인회장은 “원도심의 중심상업지역은 노후화된 상가와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야 원도심에 희망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한 심철의 시의원도 “당초 조례 개정안은 중심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도 포함했었으나 광주

시의 반대로 범위를 축소해 추진하게 됐다”며 “용적률 상향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심 의원은 “용적률 상향 문제는 1년 반이 넘도록 광주시와 수차례 논의해왔으나 제자리걸음”이라며 “어떠한 대책도 없이 더 이상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시가 잘해온 기부채납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원들은 토론회 이후 의원 간담회를 별도로 열어 조례 개정안 재표결에 앞서 내부 의견을 교환했다.

해당 조례안 재표결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2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호남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유정복 협의회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전국 광역단체장·부단체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지방분권 강화·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논의

시도지사協, 광주서 호남권 정책토론회

姜시장 “지역 성장해야 대한민국 성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호남권 정책토론회가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지방분권 강화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개회식과 특별대담,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대담은 시도지사협의회 감사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여해 ‘새 정부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1부 특별대담에 이어, 2부에서 지역 첨단산업 국제 경쟁력을 진단하고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최성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글로벌 보호무역 동향과 지역 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이어 조성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장동력사업센터장, 이지훈 전북연구원 주축·신산업팀장,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복은 주식회사 에스씨크리에이티브 대표, 김운섭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판을 여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성장하면, 대한민국이 성장한다는 신(新) 성장론이야말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발전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인공지능, RE100 등 새로운

시대의 성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통해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더는 수도권 집중 방식의 획일적 성장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가 시대를 앞서 인공지능(AI)을 택한 것처럼 지방정부는 버릴 것은 버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이를 위해 과감한 권한 이양으로 진정한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강 시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정한 의미의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에서는 교통망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도 분권형 개헌과 지역균형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변은진 기자

##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박차

추진상황보고회...콘텐츠·홍보 등 논의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23일 전남도청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추진상황보고회를 열어 콘텐츠, 홍보, 지역 기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 도 실·국장, 감·독단, 대행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양현 사무국장의 총괄보고, 유성진 총감독의 연출 추진 상황 보고, 현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박람회 기간 중 아세안 파빌리온(ASEAN Pavilion), 케이·푸드(K-Food) 글로벌 경연, 김밥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는 만큼 단순한 전시가 아닌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형 행사로 거듭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국민적 붐업 조성을 위한 공격적 홍보·마케팅도 진행키로 했다. 엠지(MZ) 세대를 겨냥한 유튜브·인스타그램 감성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대사가 출연하는 영상도 촬영할 예정이다.

박람회 종료 후 지역 기여 방안, 2026 여수세계박람회 연계, 전시관 건설 등 안전과 현장 운영 준비를 비롯한 전반적 사항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남도 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업적 가능성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계획을 구체화하고 완성도를 높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광주시, 신입직원 직장 적응 지원

내달 18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광주시는 청년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청년 신입 직원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하반기 직장 적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7월18일까지 모집한다.

‘직장 적응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리자 및 청년 신입 직원에게 직장 적응 교육을 제공,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기업 관리자를 위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과 신입 청년 직원을 위한 ‘직장 적

응 지원 교육’으로 구성된다.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기업 현장 방문 교육으로 진행하며, 참여 인원이 적으면 여러 기업이 함께하는 혼합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관리자의 리더십 강화·조직관리 ▲신입 직원의 조직 적응력 향상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힐링 프로그램 등이며 기업 이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광주지역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관리자와 입사 3년 이내 15~39세 신입 청년직원이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변은진 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